로컬플러스

부안군태권도협회, 세계잼버리 유치기원 태권도 어울림마당

부안군태권도협회(회장 홍범철)가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태권도인들이 앞장서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유치 기원 태권도 어울림마당'을 지난 26일 부안초등학교 강당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홍범철 부안군 태권도협회장, 태권도수련생,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태권도인의 마음을 모은 기증식수, 기념식 등으로 개최했다.

이날 기증식수는 김종규 군수와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세계잼버리 성공 유치를 염원하며 부안군청 광장에서 열렸다. 품새·가족 품새·태권체조 시범, 태권스피닝, 내·외 귀빈 격파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태권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유치를 염원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부안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6만 부안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태권도인도 함께 힘찬 응원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축하메시지에서 민간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잼버리 유치에 열정적으로 홍보에 앞장선 부안군태권도협회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범철 부안군 태권도협회장은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홍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농기센터, 낙엽정리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내년도 과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 과수원 내 낙엽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낙엽에는 올해 발생했던 각종 병원균과 해충이 숨어 있어 내년에 도 발병할 확률이 높다.

올해는 배 검은별무늬병과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이 많이 발생했고, 특히 예년보다 높은 기온 탓으로 작년보다 복숭아 순나방 등 해충 발생 밀도가 높았다.

기술센터는 "이러한 병해충이 월동을 위해 낙엽이나 가지 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낙엽을 정리해야 다음 해 병해충 발생 밀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낙엽을 정리하는 방법은 긁어모아 소각을 하거나 땅속에 묻는 방법이 있다. 소각을 할 때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조금씩 소각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땅에 묻을 때는 낙엽을 과일나무사이 가운데 쪽으로 모은 후 농기계를 이용하여 흙과 혼합시켜서 부식 되록 해야 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쌓인 낙엽을 방치하면 보온 효과로 인해 지표면에 있는 세균과 곰팡이 등 병원균과 해충들의 생존율이 높아져서 이듬해 병해충 발생 밀도가 높아진다"며 "빠른 시일 내 낙엽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감특위는 본청 3층 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사업소 등 총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정밀 감사를 펼쳐왔다. 이날 김영자위원장은 먼저 짧은 일정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과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펼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중점 논의사항을 보면 먼저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대책 마련, 지평선산업단지와 백구 농공단지의 분양률 제고 방안 마련, 김제시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인구유입 방안과 재정 자립도 증대 방안 마련, 환경 및 민원 해소 방안 마련 등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 시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현미 예결위원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태년 더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동철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 이개호 예결위 위원, 그리고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을 찾아 정읍 관련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김생기 정읍시장 예산확보 분주

국회 마지막 단계 지역예산 증액심사 현장 찾아 정읍 관련 예산 적극 건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김생기 시장의 막바지 활동이 분주하다.

김 시장은 지난 25일 내년도 국가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국회 마지막 단계인 지역예산 증액심사 현장을 찾았다.

김 시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현미 예결위원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태년 더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동철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 이개호 예결위 위원, 그리고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을 찾아 정읍 관련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김 시장이 첫 번째로 건의한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공원 조성(404억원)은 정부(기재부)에서 사업 규모의 축소 및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잔여사업비 296억원 전액 반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문위에서조차 70억원만 증액 의결되어 사업비 전액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선 사업 규모 축소 없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정읍경찰서 신축 이전(350억원)은 신축 부지 토지 매입비 반영 요구에 토지 매입비 일부 반영을 타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등 정읍시에서 적극 요구하고 있는 9개 중점사업과 농소~하모 국도대체 우회도로(444억원), 태인~산내 국도 건설(129억원), 하수관거정비 등 10개 일반 사업도 증액심사 대상에 올라있어 그 결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예산 심사에서 삭감 예산이 전년도보다 1조원이 적은 4조원이며, 이 중 일반예산은 1조 3천억원에 불과하여 증액예산 재원이 부족한 반면 지역예산 증액요구액은 40조원에 이르고 있어 국회단계에서의 국가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주민들 불편 초래"

부안군의회 임기태의원 질타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기태(부안,행안면)의원이 지역정서도 알지 못하는 제도권 밖의 외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녹지를 조성하거나 가로수를 식재할 때 정원의 모양이나 수종(나무)을 선정함에 있어 고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질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부안군민의 정서와는 달리 이질감과 동떨어진 외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식재하다 보니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특히 임의원은 부안군청 앞 에너지테마거리 도로를 살펴보면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을 깔아 유모차 등이 다니기가 매우 불편하고 야간에는 차량 통행의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숙면을 취할 수 없어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당초 쌈지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말해놓고 아무 설명이나 이야기도 없이 각종 조형물을 만들고 이상한 나무들만 식재하고 있어 아까운 혈세만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임의원은 조형물은 작가나 시공자만 그 의미를 알뿐 일반 군민들은 어떤 의미의 조형물인지 알 수 가없어 무었 때문에 조형물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곳은 옛 관아가 자리 잡은 곳 이여서 가로등과 가로수를 설치할 때 정서에 맞는 청사초롱 모양의 가로등과 토종 가로수를 식재 했야 함에도 토종이 아닌 가시 달린 가로수를 식재해 군민들의 불편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민선 6기 김종규 부안군수가 공약한 소통과 협력으로 군민과 대화합을 이루겠다는 말은 헛구호에 그치는 것 같다"며 "무슨 사업을 시행하기전 일부 주민들에게만 통보식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통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시정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정원문화도시 비전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소규모 도로 구간은 도시재생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이승복 김제부시장, 동절기 설해대책 현장 점검

제설차량 정비 · 제설장비 장착 여부 · 염화칼슘 확보 등

이승복 김제부시장은 지난 25일 동절기 설해대책 현장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적설량 32cm 이상)과 강추위로 제기된 시민 불편사항 보완대책 이행여부도 중점 점검했다.

이 부시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제설차량 정비 및 제설장비 장착 여부, 제설에 소요되는 염화칼슘(친환경제설제 포함), 소금, 모래 등의 자재 적정량 확보 및 관리 상태, 주요교량 및 고갯길 등 상습결빙지역에 대한 모래주머니 비치 여부와 강설량에 따른 단계별 대응 계획 그리고 갑작스런 강설에 따른 상시 제설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작년 폭설로 필요성이 제기된 염수기지 2개소 설치, 실시간 제설구간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제설을 실시하기 위한 '제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 법정도로 제설을 지원하기 위한 '읍면동 임차비 지원 예산' 확보 현황, 제설작업 응급복구 민간장비 업체 지정 상황 등을 꼼꼼히 챙기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한편 김제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보유중인 덤프 4대이외에 15톤 덤프트럭 2대를 임차하고 제설기 3대, 모래살포기 1대를 신규구입 하는 등 장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제설자재는 친환경 제설제 200KL, 염화칼슘 578톤, 소금 1,971톤, 모래주머니 20,000개 등을 확보했다.

이승복 부시장은 동절기 설해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한 도로보수원 등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절기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보건소, 11월 건전한 음주 문화 확산 캠페인

정읍시보건소는 11월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최근 건전한 음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보건소는 "음주 폐해 심각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잘못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성동 만남의 광장에서 실시된 캠페인에서는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빨리, 음주도 스마트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절주 홍보 리플릿을 나눠 주면서 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연, 구강, 절주 등 보건사업 홍보 리플릿 등을 배부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우울증 검사도 병행 실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금산면 노인사회활동지원 간담회

김제시 금산면(면장 김민완)은 지난 25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참여 어르신 25명을 초청, 관내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체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금산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9개월 간 금산면 일대의 원평천 주변과 3·1운동 당시 만세 운동을 벌였던 원평장터, 유목정 기념비 주변, 소공원 등 각종 쓰레기 수거 및 잡초제거 등 다양한 환경정비 활동을 하였고, 또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를 위한 이불빨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간담회 자체평가의 자리에서 어르신들은 "사업 참여를 통해, 동료들을 만나 나누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외로움을 덜 수 있어 삶의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금산면 일대의 깨끗한 거리환경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완 금산면장은 "그동안의 어르신들의 노고로 우리 금산면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애로사항 등을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광명시에 정읍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최근 광명시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어 지역 대표 농산물인 토마토를 비롯 단풍미인쌀 등 총 30여 품목을 판매했다.

직거래 행사는 정읍시의회와 광명시의회(의장 이병주) 교류활동 일환으로, 정읍시의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고 도·동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에는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대표 김학구), 정읍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김태환), 정읍시지역공동체협의회(대표 유연필) 등이 참여했다. 특히 첫날인 23일에는 광명시의회 의원과 광명시 정읍향우회 회원들이 찾아 정읍시의회 유진섭의장과 정읍시 관계자들과 함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해 의미를 더했다.

유진섭 의장은 정읍 복분자와인과 명품 귀리, 잡곡세트 등 정읍 단풍미인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설명,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정읍시의회와 광명시의회는 지난 3월에 우호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다.

양 시 의회는 "앞으로도 더욱 더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상호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제지구협의회(회장 홍종식)는 최근 김제 낙원웨딩홀에서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김제시 백일장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김제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시상식

우수 성적 거둔 42명 대상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제지구협의회(회장 홍종식)는 최근 김제 낙원웨딩홀에서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및 제4회 김제시 초·중·고등학생 백일장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건식 김제시장, 나병문 김제시의회의장, 전주지방검찰청 장호중 검사장, 이선홍 전주지역연합회장, 법사랑 김제지구위원,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격려 축사를 시작으로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에 공헌한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 제4회 백일장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초·중·고등학생 42명에 대한 시상식으로 진행되었다.

홍종식 김제지구협의회장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함양하여 법과 질서가 바로서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건식 김제시장은 "청소년은 미래의 기둥이며, 무한한 잠재력의 소유자"로 이시대를 이끌어가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김제시의 김제시랑장학제단과 새만금의 기반조성, 종자생명연구단지 준공 등, 미래의 꿈들을 김제에서 펼쳐나갈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었으니,

새만금의 중심도시 김제에서 21세기를 이끌어갈 리더자로 성장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한편 1997년 발족한 법무부 범죄예방김제지구협의회는 범국민 준법운동 고취 및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강연회등 법질서 바로세우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지평선 프로미활동을 통하여 우범지역 야간순찰활동등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에 심효를 기울이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